


제목 : 고령운전자 친화적 자동차기술 및 교통정책				
작성부서	1차분류	2차분류	자료 유형	① 연구보고서 ② 중장기연구계획서 ③ 연구 프로젝트 ④ 기타
첨단교통연구실	ITS	녹색교통기술		
작성자 : 문병섭 수석연구원				
키워드 : 고령운전자, 고령친화적 자동차, 노인 교통정책				
<p>일반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청장년층에 비해 20~30% 낮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발맞추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적인 자동차 기술 및 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있다.</p> <p>고령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개발</p> <p>우선 승·하차시 시트의 전후 슬라이딩을 통해 공간 확보로 시트쿠션을 일으켜 주고 좌석 등받이 각도를 세워주는 승·하강 편의 기술이 있다. 운전자의 맥박동 생체신호를 측정해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차량 내부에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발생장치, 음성명령 인식장치를 통한 운전중 시야분산과 조작오류를 감소시키는 기능, 그 외 360도 영상지원과 주차지원시스템 등이 있다.</p> <p>미국에서는 미국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종 신경계의 퇴화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실버세대를 위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서 떼어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수 있는 기능과 전방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나 야간주행시 시야확보를 위한 나이트 비전, 도로 표지판을 판독하여 계기판에 표시하는 장비 등이 사용된 자동차가 개발, 시판되고 있다.</p> <p>일본의 경우, 운전자 방향으로 38도 기울인 대시보드, 채도강화와 눈부심 저감으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는 첨단 유리창, 탑승자의 키와 몸무게를 고려해 사고 시 압력을 조절해 골격이 약한 노인들의 에어백 압력부상을 방지해주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p>				
				
[그림] 심장박동 측정 센서를 탑재한 차량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 정책 변화

일본의 경우, 2010년 한해 동안 일본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2,450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50.4%를 차지, 1966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를 나타내었다. 이에 면허 발급 자격을 강화 및 '면허 자진 반납제'가 활성화 되었다.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제도로 2009년 도쿄에서만 7,000명 이상이 면허를 반납했다.

또한 노인전용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자표시 마크를 차에 달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근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전국 고령자 거주 분포'를 파악해 노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신호 주기를 길게 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일본의 고령자 표시 마크

관련(참고)사이트 : <http://www.bbc.co.uk>
<http://www.japantoday.com>